한국문학논총 제 36 집(2004. 4) 245~270쪽

현대 소설에 나타난 '간음' 속죄의 양상

- <재생> <종각> <에덴의 후원>을 중심으로

신 익 호*

차 례

Ⅰ. 서론
Ⅱ. 속죄의 개념 및 성서적 모티프
Ⅲ. '간음' 속죄의 양상
1. 무실천적 자기 합리화: <再生>
2. 자학과 금욕: <鐘閣>
3. 도덕적 삶: <에덴의 후원>
Ⅳ. 결론

Ⅰ. 서론

종교와 문학이 다루는 본질적인 것은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문제이다. 종교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의 세계에서 聖性에 치중하며 인생의 실상을 영적으로 터득시킨다면, 문학은 순수한 상상력의 세계에서 감동과 미에 치중하며 인생을 감성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다. 종교적 체험은 인간이 철저히 실재와의 교제나 합일을 통해 신을 믿음으로써 인생 태도를 결정하게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그러나 문학적 체험은 인간이 실재와 떨어진 상상·허구의 세계에서 미적 즐거움을 가지므로 관조성에 바탕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을 둔다. 그렇지만 종교적 실체도 때로는 표현 과정에서 문학적 상상력과 기교가 필요하다.

문학에서 기독교적이라 하는 것은 소재적이거나 주제적인 상태이지 어떤 형식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기독교가 그 본질을 계율과 교리에만 치닫는다면 신앙 일변도의 광신적 경향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렇다고 학문적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비합리적 세계관 내지 특수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의 본질을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현상들을 통해 표현한다. 따라서 기독교 문학의 본질은 교회 권위를 탈피하여 현대인의 신앙적 충동을 자극하고 서술해야 한다. 그리고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서적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신앙에 대한 모든 역사적 편견과 외식을 벗어버리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 소설은 개화기 이후 해방 전후 무렵에는 소재적 배경이나 호교적 차원에서, 동란 이후 70년대에는 당대 사회에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한 사상적 방법으로서 종교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작품 중 '간음'을 모티프로 한 장편 소설, 즉 이광수의 <재생>(1925), 박영준의 <종각>(1965), 이종환의 <에덴의 후원>(1967) 등을 대상으로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간음으로 인한 속죄 과정을 어떻게 보여 주고 있는지, 또 작품 간에 속죄관의 변별성은 무엇인지 기독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다루는 '간음'의 의미는 법률적이라기보다 윤리적·도덕적·성서적 차원에서 적용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Ⅱ. 속죄의 개념 및 성서적 모티프

'속죄하다'는 본래 '하나가 되는 것' 혹은 '화해'를 뜻한다.[1]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구와 조화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성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속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창세기』 3장에

1) 『聖書百科大事典6』, 성서교재간행사, 1980, 501쪽.

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인간 원죄의 원형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탐욕의 죄를 범한다. 이로 인한 관계 단절은 인간 세계에 분열과 갈등, 타락과 살인의 죄악을 가져 왔다. 따라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이 올바른 관계에 대한 방해 요인은 불순종이라는 죄인데, 이는 속죄를 통해서만 제거된다. 『구약』에서는 속죄를[2] 위한 제물에는 희생물이나 헌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악행에 관대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었다. 죄의 결과는 막대한 형벌이 가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경멸하거나 파멸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겸손히 살았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죄인을 치유하다 죽음을 당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은 십자가상의 죽음과 관련된다. 그의 죽음에는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동물이라는 희생물에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 공로와 효과와 완전함을 지닌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 나아감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죄인의 양심이 깨끗해져 새로운 도덕적 힘을 갖게 되었다. 새 언약인 새로운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이 피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에게 바쳐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한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이 가져온 모든 결과는 '구원' 이라는 의미 속에 집약된다. 따라서 '救贖' 은 대속물을 바침으로써 구원되는 것으로 죄의 용서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이다.

성서에서 '간음'으로 인한 속죄 과정은 일반적으로 '간음-속죄-구원'의 모티

---

2) 죤 머레이, 『구속론』(하문호 역), 성광문화사, 1983, 25-64쪽 참조.
속죄의 본질은 ㉠ 희생 ㉡ 유화 ㉢ 화목 ㉣ 구속 등이 따른다.

프로 '다윗 왕'(『사무엘 하』11-12장)이나 '간음한 여인'(『요한복음』8:2-11), '호세아와 고멜'(『호세아』)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그토록 지혜롭고 신실한 다윗은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한다. 다윗은 이 간음죄[3]로 인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밧세바와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는 죽게 됨)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 죄의 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집안은 재앙을 면치 못한다.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 이 때 예수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사라진다. 이 때 예수는 그 여인의 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함으로써 죄는 인정하지만 용서로써 사랑을 보여 준 것이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데, 그녀는 결혼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오게 한다. 따라서 호세아의 결혼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호세아의 아내에게 비유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다시 품에 안아준 것이다.

이런 간음죄의 모티프는 서양의 기독교 문학에 흔히 나타나는데, 대표적 작품으로 어거스틴의 <참회록>,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톨스토이의 <부활>,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그레이엄 그린의 <권력과 영광>, 콜린 맥컬로우의 <가시나무 새> 등이 있다.

---

3) 강성두, 『구원과 해방』, 쿰란출판사, 1994, 256쪽.
성서의 제 7계명이 뜻하는 '간음'은 정혼이나 결혼한 사람들끼리 범하는 불륜 관계를 뜻하며, 반면 결혼한 남자가 처녀를 범했을 경우는 간음이 아니라고 『구약』은 명시하고 있다.

Ⅲ. '간음' 속죄의 양상

1. 무실천적 자기 합리화: <再生>[4)]

여주인공 김순영은 미인이며 재원으로서 W대학에서 인기를 독차지해 뭇 남성으로부터 시선을 받는다. 그녀는 신앙과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P부인의 사랑을 받으며 그녀의 뒤를 잇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도미 유학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녀의 자만심과 물질적인 허영심은 장안의 갑부인 백윤희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첩이 된 후 성병까지 얻게 되자 금강산 구룡연에서 딸과 같이 투신 자살한다. 그녀는 죽기 전 용기있게 봉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그의 숙소에 있었던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며 법정 증인으로 나서나 오히려 자신만 불행하게 된다. 한편 순영의 애인 신봉구는 3·1독립 운동에 연루되어 감옥에 있는 동안 순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좌절한 나머지 돈을 벌어 그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米豆의 점원으로서 김의관의 신임을 받고 열심히 일하던 중 주인을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을 기다리다 진짜 범인이 체포되자 무죄로 풀려난다. 그 후 그는 복수심을 버리고 속죄하는 순영을 용서하고 민족과 사회를 위해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바칠 것을 다짐한다.

순영은 도미 유학을 준비하던 중 순간적인 허영심에 젖어 갑부인 백윤희의 유혹에 넘어가 물질과 육적 쾌락에 탐닉한다. 순영은 처음 백윤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안의 화려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에 압도당해 자신의 초라함을 인식한다. 이 때부터 백윤희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시각도 남성적인 우아함과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그녀는 이처럼 그의 집을 다녀 온 후에 가치관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다. 그녀는 백윤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지만 결국 정욕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의 노예가 된다. 그녀의 우유부단함은 후에 참회하며 P부인처럼 고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다시 백윤희와 함께 50일 동안 별장에서 쾌락을 즐기고, 또한 신봉구에게 '영원불변'이라는 혈서를 쓰며 사랑을 고

---

4) 구인환, 『이광수 소설 연구』, 삼영사, 1987, 80-84쪽 참조.
이 작품에 나타난 순응적 상황의 사회 현상을 ①퇴폐성 ②그릇된 정조관 ③축첩 풍조 ④서구에 대한 동경으로, 저항의식으로는 ①지도자 정신과 조국애 ②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인류애 등으로 나누고 있다.

백하지만 결국 한 달도 못되어 백윤희의 소실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 순영에게는 둘을 가지고 싶었다. 백에게 좋은 것이 있었고 봉구에게도 좋은 것이 있었다. 백의 음탕한 것과 돈, 봉구의 깨끗한 것과 또 뜨거운 사랑과, 이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싶었다. 순영의 속에는 두 순영이가 있었다. 하나는 백의 순영이요, 또 하나는 봉구의 순영이었다. 만일 한 팔로 백을 안고 또 한 팔로 봉구를 안고 동대문 밖 집이나 원산 별장에 누웠으면 작히나 좋을까 — 순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한다.[5]

위 글은 출옥한 봉구의 편지를 받고 괴로워하는 순영의 모습이다. 그녀는 이 때 이미 오빠인 순기의 계략에 빠져 동해 온천에서 백윤희에게 몸을 빼앗기고 학교에 돌아온 뒤이다. 그녀의 욕구는 이중성을 지니며 중개자의 변이함에 따라 그 성취 의욕이 달라져 나타난다. 하나는 P부인이나 인순의 중개에 의한 봉구에서 성취와 구제를 찾으려는 지향적 욕구요, 또 하나는 선주를 매개로 한 백윤희에 탐닉하는 순응적 욕구이다.[6]

그러나 지향적 욕구의 대상인 P부인이나 인순의 그리스도적 삶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 부정과 희생을 거부하는 바리새인 청년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들은 순영이 올바르게 깨달아 불행한 삶을 이길 구실을 주었지만 그녀가 정작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는 뚜렷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순영이 봉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P부인이나 기타 어른께 교사 자리를 구하려 보았으나 이 더러운 순영을 용서하는 이도 없어서”라고 하듯이 그녀는 철저히 주위로부터 외면당한다. P부인이나 인순의 선한 삶은 물질에 가치를 두는 백윤희나 법의 질서와 정의에 가치를 두는 윤변호사의 관념과 같이 인간 사회에서 균형적인 질서를 위한 가치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 더욱 포괄적으로 보면 순영이 P부인의 신앙적 삶을 따르려는 ‘성도의 길’과 신봉구나 백윤희의 인간적 사랑을 따르려는 ‘중생의 길’에서 갈등을 겪는다. 순영의 이러한 갈등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로서 속세적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욕망뿐만 아니라 고귀한 이상을 쫓는 초자연적 욕망도

---

5) 이광수, <재생>, 『이광수 전집 2권』, 삼중당, 1963, 92쪽.
6) 구인환, 앞의 책, 74쪽.

공존한다.

그런데 순영이 중생의 길에서 신봉구를 택한다는 것은 순결한 행복을 찾는 미덕의 길이요, 백윤희를 택한다는 것은 육적 욕망을 따르는 악덕의 길을 의미한다.[7] 마침내 순영은 백윤희의 첩이 되어 육욕과 물욕에 탐닉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런 생활을 탐닉해도 근원적으로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P부인이나 인순이 따르는 성도의 길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고, 아무리 후회하며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잃은 정조를 회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P부인처럼 교회와 교육에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지만 쾌락이라는 탐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체는 신봉구와 김순영, 객체(대상)는 그리스도의 삶과 속세의 삶이라는 관념적 가치관이고, 욕망의 중개자는 P부인이나 인순, 쾌락적 삶의 중개자는 백윤희・명선주・김순기 등[8]이다. 그리스도적 삶에 대한 욕망의 중개자는 순영이 물욕과 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여성 교육 지도자로 나아가길 바라나, 쾌락적 삶의 중개자는 순영이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쾌락적이고 물욕적인 인간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래서 백윤희는 순영의 둘째 오빠인 순기에게 빚을 구실 삼아 청혼을 부탁하고, 순기는 이런 구실로 동생의 행복보다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순영에게 결혼을 권유한다. 윤변호사는 백윤희처럼 돈으로써 첩을 삼는 탐욕적 인물이다. 선주는 자유분방한 애정관과 무책임한 운명관에 사로잡혀 신실성이 없이 기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따라서 순영의 허영심은 이런 중개자들의 욕구에 편승하여 오빠의 계략인 줄 알면서도 온천에서 백윤희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

---

7) 권대웅, 『춘원의 작품과 종교적 의의』,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147쪽.

8) 김치수,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181쪽.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을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삼각형의 욕망'(triangular desire) 이론 (주체 — 중개자 — 대상)에 따라 욕망의 구조를 밝힐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주체의 욕망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추구하기보다 중개자라는 타인의 욕망에 자극되어 대상을 소유하려 한다. 주체는 분명히 대상을 소유하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개자가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따른다. 따라서 주체의 대상에 대한 욕망이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즉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경쟁 상태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이 때 주체인 주인공은 중개자의 본질을 닮아 그것과 동화될 것을 바란다. 그는 중개자의 힘과 그 자신의 지성이 완벽하게 합일되는 상태를 상상한다.

하고 같이 쾌락에 젖음으로써 같은 부류의 중개자들에 대해 우월감과 자만심을 갖는다.

그러나 순영은 갈등 속에서 헤매다 봉구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속죄하는 의미로 눈 먼 딸과 함께 자살을 한다. 이것은 작품 구조상 모든 오해와 갈등의 해소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녀의 비극적 결말은 처음 택한 성도의 길을 포기하고 중생의 길을 택한 후 탐욕에 젖은 삶에서 헤어나지 못한 갈등의 결과이다. 즉 순간적인 자만심과 현실적 체험에서 야기되는 참담한 실망 사이의 거리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회개 행위는 실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단지 작가의 관찰만 서술되고 있다. 그녀의 자살은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죽음으로써 현실의 타락한 영혼을 재생시켜 새로운 삶의 거듭남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물의 원형성이 정화·재생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듯이, 그녀는 물 속에서 죽음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한다면 죽음을 택하는 것보다 희망을 가지고 불행한 딸을 보살피며 새로운 삶을 계획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봉구에게 있어 순영은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가 독립 운동을 하는 것도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는 뚜렷한 주관이나 조국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영이 옆에 있음으로써 만족한다. 그래서 독립 운동을 하면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순영이 지켜봐 준다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가 감옥에서 순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정작 순영은 그를 잊은 채 백윤희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이처럼 순영은 처음에는 봉구에게 사랑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봉구는 순영한테서 버림을 받았을 때 돈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도 백윤희와 같이 부자가 되어 복수할 것을 결심한다.

> 순영이를 죽여만 버려 가지고는 도저히 이 원망을 풀 길이 없다. 그를 오래오래 살려 두고 지지리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도 시원치 않고 저승에까지 따라가서 순영을 지옥의 유황불 가마에다 넣고 재글재글 끓이고 볶아도 이 분풀이가 될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9]

9) 이광수, 앞의 작품, 128-129쪽.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살인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 점차 성도의 삶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순영을 용서하고 이웃에 봉사하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계획한다. 그는 처음에 순영과 같이 중생의 길을 따르다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도의 길을 추구한다. 이것이 봉구의 거듭난 삶의 재생을 의미한다.

예수는 죄 없이도 많은 이들을 사랑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는데, 자신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순영을 소유하려 했던 이기적인 욕망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려 그녀를 미워하고 저주하였다. 이런 점에서 비록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악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순영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 감옥에서 깨달은 성도의 길을 따르려 하기 때문이지만 도덕적·패배적 자기 합리화의 일면이 있다.

이처럼 신봉구가 농촌에 들어가 인류애적인 사랑을 펼치는 것은 춘원의 박애 사상에 기인한다.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영향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기독교라는 한 종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교도나 모든 인간애를 통해 나타난다고 본다. 그는 농민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도 그리스도나 부처의 빛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는 신은 인간 위에 절대자로 군림하며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종교 속에 갇혀 있는 형성화된 관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이웃 사랑 속에 나타나는 존재이다. 이러한 신의 존재로 나타난 것이 예수그리스도나 석가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신앙관은 편협한 교리나 이념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광수는 교리적·의식적인 종교보다 생활 윤리로서의 종교를 강조했다. 이것은 그리스도나 석가의 사랑과 자애의 윤리이다. 그는 인간이 신의 자녀이며 이웃에 대해 똑같은 형제라는 동포 의식(『요한복음』~17:21)을 갖는다. 이 동포 의식은 전 인류를 화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한 종족이나 국가, 종교를 초월한 신의 자녀요 똑같은 동포라는 개념이다.

이 작품에서 순영이 타락하고, 이에 봉구가 증오심에 쌓여 돈을 벌려다 억울

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어둠과 죄악의 세계라 할 수 있고, 순영이 자결하고[10] 봉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빛과 거듭남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몸같이 절실히 사랑할 대상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으로서의 이웃이지 이웃들의 집단일 수는 없다. 그런데 춘원의 민족주의가 상정한 윤리의 대상은 민족으로 혹은 농민으로 불리는 대중이었다.[11] 즉 봉구가 사랑하는 대상은 이웃의 한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민족의 대상으로 추상화되어 있다. 이 사랑이란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이라기보다 추상적인 관념의 형상화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봉구의 민족주의나 이웃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후의 자포 자기적인 보상 심리라 할 수 있다.

2. 자학과 금욕: <鐘閣>

최광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주색잡기로 탕진한다. 그는 많은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심지어 처제까지 범하자 그 충격으로 아내는 자살해버린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속죄하는 자세로 교회 사찰직을 맡으면서 군고구마 장사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며 반신불수가 된 처제를 데리고 산다. 그의 가족은 양복점을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대주, 전처 소생의 딸 경선, 처제와의 사이에 두 명의 자식 등 모두 여섯 식구이다. 그러나 이런 궁색하면서도 불행한 가정 생활에서 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죄 값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신앙의 거울에 비춰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경건한 삶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이런 최광주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활 태도이다. 그는 반신불수인 아내를 뒷바라지하며 어려운 가정을 꾸려가지만 아내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선 너무 무관심하다. 또한 양복점에 다니는 대주는 형의 살림을 돕기는커녕 형에게서 돈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하며 형의 신앙을 비웃고 그를 바보 취급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목사 부부, 전도 부인, 정

10) 순영의 죽음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ㄱ:15)는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11) 기진오 外 2人, 『한국 근대소설의 기독교 수용』, 성서교재 간행사, 153쪽.

장로 등은 철저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려는 인물로서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떳떳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한다. 이에 반해 김장로나 김집사는 겉으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행세하는 위선자들로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중심적인 삶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물 유형이다. 이들은 자기 눈에 들어 있는 대들보는 모르고 상대방의 티만 보며 약점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목사의 딸 선희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윤리나 체면, 신앙에 구애받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 목사는 결국 딸의 방탕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또한 전도 부인과의 부도덕한 관계로 오해받아 전도 부인과 함께 교회를 그만두고, 대주는 선희와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죄목으로 구속된다. 이처럼 이 작품 속에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행로는 인간 본연의 흑백 논리에 따라 끝까지 평행선을 그리며 전개되는 단순 구성으로 독자는 극적 긴장감에 젖어들 수가 없다.[12] 광주를 포함한 이들의 성격도 시종일관 평면적이어서 삶에 대한 치열한 내적 갈등이나 고뇌의 흔적이 없고, 또한 신앙에 대한 깊은 탐구의 자세나 교리에 대한 치열한 논쟁도 없어 지나치게 단선적인 느낌이다.

광주가 자책감을 갖는 갈등 요소는 크게 가정 내와 교회 문제에 따른 것이다. 가정 내에서는 자신의 신앙 생활과 죄의식, 삼애의 불행과 삼애와 전처 소생과의 갈등, 동생 대주의 방탕함이고, 교회의 경우 목사와 전도 부인 사이를 의심하거나 딸의 탈선 행동에 책임을 물어 목사를 축출하려는 김장로와 김집사의 태도이다. 따라서 그는 이런 문제, 특히 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린다.

첫째, 처제이면서 지금은 아내가 된 삼애를 위한 기도로서, 그녀가 반신불수가 된 것은 자신과의 불륜 관계로 아내가 자살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죄를 대신 삼애가 짊어졌기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다. 그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한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지만 낚시꾼에 의해 구해졌는데, 그것은 그가 속죄하여 천당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고통 원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방탕한 삶에 따른 것으로 언제나 정신적 고통이 자신을 짓누른

12) 김봉군, 『한국문학에 나타난 죄와 구원의 문제』, 『국어교육』~81,82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3, 170쪽 참조.

다. 그래서 신앙 생활의 초기 무렵 몇 년간은 전적으로 그녀와의 관계에 따른 기도였다. 처음에는 삼애가 자기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녀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육체적 불구가 그들의 죄가 합쳐져서 받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내보다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자학에 사로잡힌다.

이에 반해 삼애는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그렇다고 절망적인 자포자기 상태도 아닌 단지 무기력한 모습이다. 삼애는 남편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가 혹시 자신만이 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한다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광주 자신은 영원히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다행으로 여기며, 그것은 그녀의 신앙이 두텁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일 아내가 자신을 죄인이라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광주는 두 사람 몫의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는 동생 대주가 믿음을 갖고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인간이 되어 달라고 기도한다. 대주는 김장로 양복점의 종업원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매사에 하고 싶은 일 다하고 즐기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는 형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 속에서 목사의 딸 선희와의 탈선 행각이 탄로나 목사가 사직할 처지에 이른다. 그는 기독교 교리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에 단순한 기호품 (술, 담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금기 사항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자만이 충성한다는 것 등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원시적 종교는 비현실적이라 매도한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란 본능적 쾌락에 탐닉하는 관능적 즐거움이다. 그래서 형인 광주가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위해 금욕생활 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본다. 그것은 형의 행동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헌신적인 희생이 아니라 죄값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으니 공범자로서 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단지 참고 견디는 자기 희생일 뿐이다.

셋째, 딸 경선이 자기 부모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이

다. 만일 경선이 부모의 과거 죄를 안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아이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들 부부의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철저히 비밀을 지켜달라고 간구한다. 따라서 경선이 일기장을 통해 부모의 비밀을 알고 가출할 때 그는 처절한 딸의 고통을 인식하면서 이제야 죄의 대가를 받는다며 용서받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가 아내에 대해 헌신하는 것은 희생적인 애정의 발로라기보다 불쌍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에 기인한다. 그는 옛날 정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아내가 죽어도 무방할 정도로 삼애를 사랑했건만 지금은 폐인이나 다름없는 그녀를 동등한 인간의 위치에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삼애는 배우자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에 자신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를 버리지 않고 돌봐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연민의 감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사랑 없이도 연민을 느낄 때 미워하지 않는 감정이고, 미워하지 않는 한 죄를 짓지 않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삼애는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연민의 감정이 사랑을 대신한다. 정상적인 육체 관계의 회복은 연민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삼애의 육체적 불구는 그에게 사랑의 감정에서 연민의 감정으로 변하게 한다. 이 연민의 감정을 갖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는 시종일관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 그러나 괴로워하다가 화석이 되면…… 하던 목사님의 말이 평화를 얻고 있는 그의 마음에 새로운 죄의식을 느끼게 했다. 죄의 발자국을 가슴에서 지워버리지 말라.…… 그런데 자기는 시일이 경과함으로 과거의 죄를 잊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내와의 부부 생활을 부활시킴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괴로움을 잊는데서 오는 현상이다. 나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과거의 죄를 잊었다는 말인가? 또 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13]

13) 박영준·이무영, 『한국현대문학전집10』, 삼성출판사, 1981, 337쪽.

그는 불편한 아내에게 정욕을 느끼는 것도 죄로 생각한다. 자신이 과거를 회개하고도 금욕 생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면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욕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해 육체적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일 즐거움을 가진다면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는 즐거움을 지닐 수 없다. 그가 생각하기에 죄란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느낄 줄 모르면 새로운 죄를 지으려는 여백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를 받았어도 가슴 속에 두고두고 자국을 남겨 그것을 거울 삼아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괴로워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예수는 인류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졌는데 우리 인간은 최소한도 자신을 위해 마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우리는 죄지은 인간들이기에 십자가를 벗을 수 없다.

흔히 금욕주의적 삶의 태도는 자기 훈련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기 억제 방법이다. 이런 금욕적 자기 통제는 심리적으로 하나님 축복의 원인으로 바뀌어 자기 구원 방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금욕주의적 요소는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 속에서 발견된다. 율법주의자는 현세의 욕망을 피하기 위해 유한적 실존의 한계 속에서 율법 준수에 관련하여 자기 억제를 지시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도덕적 자기 실현의 어떤 행위에 필요한 요소이다. 무제한적인 본능과 권력 의지에 제한을 가하여 인간 스스로 유한성을 수용하도록 한다. 유한한 존재의 비극적 상태를 벗어나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은 스스로 유한한 존재의 완전 부정에 있다.

자기 구원의 금욕주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은, 그것이 의식적인 자기 부정 행위에 의한 무한자와의 재결합을 강행하려고 꾀하는 한 실패한다. 인간성에 있어서 욕망의 대상들은 실제로 소멸하지 않고 억압된 형태에서 존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은 때때로 크나큰 공상의 형태로, 또는 지배 의지로, 열광주의, 새도-매조키즘적(sado-masochist), 자살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14] 금욕주의는 자기 구원의 방법으로서 위험한 왜곡이며 실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주의 자학과 금욕적인 속죄관은 기독교적 속죄 의식

14) 폴 틸리히, 『조직신학』(김경수 역), 성광문화사, 1978, 144쪽.

에 한국 문화의 유교적 가치관이 가미된 듯한 분위기이다. 원래 한국 문화의 전통적 가치 중심은 유교적인 도덕관 내지 윤리 규범이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전통 사회 구조를 통합하는 기본 원리였는데, 이 사회적 통합의 기본 가치는 권위와 복종, 비물질주의, 성에 대한 금욕성, 공동성, 귀속성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15] 이런 가치 지향성이 한국 문화 가치관에 토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광주에게 정욕의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은 죄 자체보다 우리 풍속과 제도의 차원에서 바라 본 가치 판단과 세상 비난에 따른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시종일관 죄의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연히 '일기장 사건'이 일어나는데, 경선은 아내가 숨겨 놓은 일기장을 몰래 훔쳐 보고 그들 부부의 과거를 알게 된다. 이로 인해 불안에 빠진 아내가 경선을 구박하여 내쫓자 광주는 경선과 고아인 명소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경선을 통해 자신의 죄의식을 자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죄없이 부모의 비밀을 알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경선의 운명은 결국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표이고, 또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경선이 아내가 숨겨 놓은 일기를 보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자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밀이 탄로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내린 것으로 보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밝혀져 이런 고통과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마음 속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처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에 최후 수단으로 죽음으로써 사죄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삼애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리라 생각하여 철물점에서 칼을 사오다 길거리에서 전도 부인을 만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단념한다.

그러나 삼애가 경선 가출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괴로워하자 광주는 잘못을 깨닫고 고아원에 가서 경선을 데려온다. 그리고 목사와 전도 부인 사이의 결백을 알고 있던 그는 사찰직을 그만두면서까지 그들의 누명을 벗기

15) 이강수, 『한국대중문화론』, 범문사, 1987, 97-98쪽 참조.

기 위해 용기 있게 증언한다. 그것은 올바르고 깨끗한 삶이 과거를 속죄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회 주위에서 배회하는 거지 아이를 집에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사표 제출 후 마지막으로 새벽종을 칠 때 자신의 참을성과 용기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종소리를 통해 환청으로 듣는다. 그는 일련의 이런 행동을 통해 용서가 사랑보다 더 힘들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기적인 자신의 애정관을 반성한다.

> '뗑그렁' 이렇게 종을 치기 직전 종을 우러러보는 것은 광주에게 있어서 종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생각되었고, 거기서 울려 나오는 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처럼 거룩한 목소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구석도 비우지 않고 온 누리를 꽉 채우며 울려 나가는 종소리에 죄진 사람은 귀가 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16]

이 <종각>은 수미쌍관식 구조로 광주가 새벽마다 치는 종소리에서 시작하여 사찰직을 그만두게 되는 다음 날 새벽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는 종소리로 끝나는데, 이 종소리와 여기에 담긴 신앙심('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작품의 형식적 구조에 있어서나 내면적인 모티프에 있어서 은연중 통일되어 있다.[17] 그에게 종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좋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이다. 이 종소리에 모든 죄진 자들은 귀가 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 종치는 새벽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 순간만은 가장 엄숙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종소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친자식처럼 사랑의 눈길로 감싸주고 있다는 자의식적 현상이다. 그는 마치 신비주의적 현상처럼 종소리를 통해 신적 현존을 자각한다. 이 순간만은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자기 인생이 가장 밝아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교회 내에 문제가 야기될 때, 즉 목사 축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김장로와 김집사, 목사의 딸 선희가 방탕한 남녀 관계 문제로 목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이 종소리는 아무리 쳐도 종각 밖으로 멀리 우렁차게 울려 퍼지지 않고 종각 안에서만 맴돌

16) 박영준・이무영, 앞의 작품, 244쪽.
17) 이보영, 『한국소설의 가능성』, 청예원, 1998, 49쪽.

았다. 그것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언제나 종을 15번 치는 것도 젊었을 때 15명의 여성을 범했기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에서이다. 자신으로 인해 죄지은 여인들이 죄사함과 용서를 받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이처럼 그의 신앙관은 종교적 신념이나 구원의 확신보다 물리적인 죄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고픈 보상 심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이나 내세의 확신보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전념한다. 그러므로 불구자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증오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만 짓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를 얻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3. 도덕적 삶: <에덴의 후원>

<에덴의 후원>은 일제 말기부터 6·25동란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고난을 다양한 주인공들을 통해 생생히 묘사한 것으로서 일제 말기의 가혹함, 해방의 기쁨, 민족 분단의 아픔 등이 사회적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려서부터 오누이처럼 지내온 최대위와 순분은 사춘기에 들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나 가정 형편이 달라 결혼하지 못한다. 대위 아버지 최장로는 선교사인 모홀랜드 박사에게 부탁하여 서울에서 이화여전에 다니는 홍근자라는 처녀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한다. 그러자 대위와 순분은 결혼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부모의 만류로 고민하다 순간적인 실수로 육체 관계를 맺는다. 그 후 순분은 임신하자 글을 남기고 무단 가출한다.

한편, 최대위는 속죄의 대가로서 결혼을 포기하고 '자하기독병원'을 세워 일생을 무료 의료사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그는 일본 패망 무렵 일본에서 손가락 불구로 귀국한 영선과, 홍근자는 양정수와 각각 결혼한다. 그후 대위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병원장을 맡아 무료 의료 사업을 펼치다 6·25 동란을 맞는다. 이 때 대위는 공산군에 의해 처형 직전 공산주의자가 된 순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그러나 순분은 서울 수복 시 퇴각하지 못하고 검거되어 재판 중에 감옥에서 자살한다. 대위는 순분 사이에 태어난 인덕을 한

가족처럼 돌보지만, 인덕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우울증에 빠지다 이복 누이와 근친 상간을 범해 가족의 비참한 불행을 야기시킨다.

이 작품의 구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1장~17장의 내용을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적 공간으로 볼 때 ①~⑫장은 일제 말엽, ⑬~⑰장은 6·25 동란 후 휴전까지의 시기로 우리 민족의 수난사라 할 수 있다. 전반부에 비해 2부는 역사적 시·공간이 너무 축약된 구성 전개이다. 작품의 모티프는 기독교 신앙이지만 중심 스토리 전개는 한 영웅적인 인물의 청춘 로맨스 이야기이다. 따라서 치열한 신앙적 갈등이나 고뇌가 없이 속죄 의식이 안일하게 관념적으로 처리되고, 비약과 우연성 등 복합적인 사건 전개에 따른 흥미 위주에 치우치다 보니 긴밀하면서도 탄탄한 구성이 결핍되어 있다.

1부의 일제시대 공간에는 식민지 하에서 우리 국민으로서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상적인 감시와 행정 절차 통제, 고등계 형사·행정 관리·학교장 등의 횡포와 부패상, 차별화가 냉소적으로 나타나며, 2부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랑하는 남녀의 운명적 불행과 그에 따른 가정의 비극을 생생히 나타내고 있다. 내면적 주제는 기독교의 속죄 모티프이지만 표면적 스토리는 한 여인에게 고통을 준 주인공이 속죄의 대가로서 전 재산을 정리하여 무료 의료사업을 펼치기 위해 병원을 짓는 과정 중에 펼쳐지는 청춘 남녀의 통속적 연애담이다. 최대위는 단지 윤리적·도덕적 가치관에서 자신의 로맨스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끔 자책감을 느낄 때 순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마지못해 나타내고 있다.

최대위는 홍근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순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어른들의 권유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며 순분과의 관계를 단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순분의 장래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보상하리라 다짐한다. 그는 근자에게서 자신의 배우자로서 매력을 가지면서도 마음 속에는 순분의 맑고 아름다운 순정이 각인되어 있다. 그의 우유부단한 단면은 그를 위해 헌신해 온 아버지의 희생을 거역할 수 없는 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순분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즉 순분도 석집사라는 교인과 결혼해 자기와 같이 이웃집에서 서로 돕고 예전처럼 오누이같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의 결혼식 며칠 전에 순분이 임신 사실을 알린 후 가출하고, 이런 사실을 안 그녀 아버지 김영수가 격분해 이발소 가위를 가지고

대위 아버지에게 대들자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는 쇼크사하여 그의 결혼 계획은 파경에 이른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저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순분의 슬픔에 대한 갚음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로님 댁에 대한 죄송함도 얼마간 덜어지리라 생각됩니다.[18]

위 인용 부분은 대위가 파혼에 따른 충격을 위로하는 홍장로에게 답변하는 부분이다. 그는 속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 일생을 바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없이 관념적일 뿐이다. 단지 그가 생각하는 속죄는 한 여성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순분이 나타날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선하게 생활하거나 자선 사업을 펼쳐 불행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속죄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일이며, 충격으로 죽은 아버지 영혼을 위로하고, 일생이 짓밟힌 순분의 슬픔에 대한 보답이고, 나아가서는 딸의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홍장로 부부에게 미안함을 덜어주리라는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순분을 만나 결혼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확신한다. 그래서 그는 근자로부터 사랑의 고백 편지를 받고도 순분을 만날 때까지 결혼할 수 없다고 답장한다.

이런 그의 속죄관은 다분히 '도덕적 감화설'[19]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이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죄인 구원의 대속물로 보는 형벌 대리적 속죄설과는 달리 단지 도덕적 감화를 받아 죄를 멀리하고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닌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니 그의 속죄 사업을 성인이나 도덕 군자의 모범적 행위와 같이 생각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감동을 받아 과거의 잘못을 통회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 사상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데 있다. 그 이유

18) 이종환 외 3인, 『신한국문학전집23』, 어문각, 1975, 26쪽.
19) 루이스 벌고프, 『조직신학』(이상원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628쪽.

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할 자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요구하실 이가 아니기 때문이다.[20] 즉 하나님의 性情을 나타낸 그리스도로부터 감화를 받을 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대위는 확고한 신앙적 신념보다 이런 도덕적 감화의 속죄관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무료 의료사업이라는 자선 사업과 선한 삶을 보여 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그는 학생 신분으로서 순분과의 관계로 인해 퇴학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일본인 교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퇴학을 모면한다. 그가 만일 퇴학당하면 속죄할 길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선 사업을 펼치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여 병원을 지으려 했을 때 건축 허가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신의 병원 의사들이 징집당할 처지에 있을 때 담당자나 경찰을 돈으로 매수하여 능숙하게 해결하면서 “지혜는 뱀과 같이 하라”는 등 성경 구절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킨다. 무료 의료사업은 하나님 사업이기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최대위는 영웅적이면서 도덕적인 화신으로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불가능이 없이 만능주의자로 비쳐진다. 그는 비싼 전답을 팔아 마련한 큰 제재소 사업을 외삼촌에게 맡기고, 순분의 아버지 김영수에게 이발관을 확장해주고, 순분과 혼담이 오갔던 석집사에게는 이발관을 세워주고, 일가 친척에게는 얼마 정도 돈을 나눠주는 관대함도 베푼다.

홍근자는 그에게 청혼하면서 일말의 투기심도 없이 순분을 같이 찾자는 너그러움을 보여준다. 그는 방학 중에 무작정 상경하여 하숙하면서 순분을 찾기 위해 여러 예배당을 돌아다니며, 하숙집 딸이면서 보육학교 학생인 한영선과 눈오는 밤 서울 시내를 누비고, 때로는 다방을 드나들며 감미로운 낭만에 젖기도 한다. 이런 여성 편력적 로맨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야 할 그가 일관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나타낸다. 그의 속죄하는 삶은 치열한 고뇌나 아픈 흔적이 없이 너무 안일하고 상투적이다. 그러므로 사건 전개도 우연의 연속성과 서술적 진행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젊음이 되살아나는 듯하면서 이성의 달콤한 감정에 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분에 대한 죄책감과 그의 인생 설

20) 채필근, 『철학과 종교의 대화』, 대한기독교서회, 1983, 258쪽.

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된다. 영선과 근자는 한 남성을 두고 어떤 갈등이나 질투도 없이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는 시종일관 속죄 방법으로서 다른 여성을 사귀지 않고 인간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의술을 베푸는 것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라 생각했었다. 사무적인 일 이외에 이성 간의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책감은 그의 우유부단한 행동을 합리화시키지 못한다. 영선은 그의 실질적인 동반자로서 어려운 모든 것을 도와주는데, 그가 병원을 건축할 때 개인 비서로서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으로 모든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또한 과로로 대위가 쓸어졌을 때는 헌신적인 병 간호를 해준다. 이런 영선의 뒷바라지는 마치 동반자가 되는 복선처럼 대위는 영선의 일본 유학이나 독창회 후원자로서 보답하고, 후에 징집 당해 손가락이 절단되어 귀국한 영선과 스승인 문박사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의 후반부는 6·25 사변이 일어나자 행방불명된 순분이 나타나 총살 직전에 처한 대위를 구해주고, 순분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는 내용으로 사건 진행이 너무 비약적이고 설명식으로 나열되어 전반부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구조이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 중에 피란 가지만 최대위는 남아서 환자를 지키다 체포되어 부르주아로 몰려 처형 직전에 놓인다. 대위는 그의 병원 식구였던 일부 수위, 간호사, 의사 등 공산주의 추종자들에게 병원을 빼앗기고 인민재판을 받는다. 이 때 순분은 공산주의자가 되어 지하 활동하다 체포되어 복역하던 중 공산군이 남침하자 풀려나 여성동맹 부위원장이 되어 대위를 구해준다.

> —그래 나는 순분에게 지은 죄를 아직도 속죄 받지 못했어! 혼자서 애를 썼을 뿐 하나님께서는 속죄해주시지 않으셨어! 인제야 하나님은 옳은 벌을 주시는구나!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달게 받자! 순분이를 위해서![21]

위 인용 부분은 대위가 처형당하기 직전 절박한 상황에서 토해내는 독백이다. 그는 이런 곤경에 처하는 것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자각하면서 자신이 죽는 것은 순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순분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도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분의 죽창에 찔려 죽음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고통에 보람을 느끼

21) 이종환 외 3인, 앞의 작품, 129쪽.

고 진정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분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항변하며 대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그녀는 연민의 정으로 대위를 구해주며 지나온 삶을 이야기 하지만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떨쳐 버릴 수는 없었다. 이런 분노와 반발심이 그녀를 맹목적인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위는 공산군이 퇴각할 무렵 눈물로 호소하며 순분을 붙잡으려 하지만 가진 자들에 대한 그녀의 적개심은 남한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그녀는 이념적인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사랑했던 사람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때 월북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어 체포된다. 대위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부끄러운 과거와 체면에 연연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며 변호하지만, 순분은 그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념과 사상, 가정이 다른 데 한 땅에서 같이 사는 고통이 지옥보다 큰 형벌이라 항변하며 자살해 버린다. 대위는 순분의 자살로 고아가 된 인덕을 데려다 한 가족처럼 키운다. 그러나 인덕은 사춘기를 지나며 정신적 방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폐적 성격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복 동생인 현아에게 임신시켜 근친 상간의 죄악을 범한다.

> 내 운명이라는 것이 저주스러운 겁니다. 내가 핏덩이로 잉태되지 않았어야 했던 겁니다. —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운명을 저주하고 내 운명은 나를 또 저주합니다. 이것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늘.[22]

인덕은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의 다정한 보살핌을 받지만 출생 과정을 비관하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다. 이런 비극적 운명관은 시종일관 이 작품의 중심 모티프로 작용한다. 즉 순간적 실수로 인한 대위와 순분의 탈선, 순분의 임신으로 인한 가출로 홍근자와 결혼 직전 파혼, 대위와 근자가 서울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후 같이 귀향하다 기차 안에서 사상 불온자로 몰려 1주일간 유치장 신세 지고 그로 인해 사회 활동에 시련을 겪은 일, 피란 가지 않은 최대위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처형당하기 직전 순분이 구해 준 일, 수복 후 체포된 순분이 옥중 자살함, 순분의 아들 인덕이 이복 남매인 누이 현아에게 임신시킨 사건

22) 위의 작품, 160쪽.

등이다

이처럼 주인공들은 일시적 실수에 따른 가책과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고통의 구렁덩이에 빠져든다. 최대위는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호숫가에 빠지자 달아나는 금붕어를 향해 "죄 지은 놈들은 꼼짝 말고 있거라!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 가둔다. 에덴 동산 뒤뜰로 모조리 오너라!"고 울부짖으며 항변하는데, 이 울부짖음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써 원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듯이 인간이 아무리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숙명적인 징벌'을 의미한다. 특히 최대위가 숙명적인 인간의 불행과 고뇌를 이겨내지 못하고 술에 취해 울부짖는 항변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Ⅳ. 결론

기독교에서 속죄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회복하는 구원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동물이라는 희생물에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 공로와 효과를 지님으로써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救贖은 대속물을 바침으로써 구원되는 것으로 죄의 용서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이다.

성서에서 간음죄로 인한 속죄 과정은 일반적으로 '간음—속죄—구원'의 모티프로 '다윗' 왕이나 '간음한 여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런 간음죄의 모티프는 서구의 많은 기독교 소설에서 치열한 육적 갈등과 신실한 신앙의 윤리성을 바탕으로 구원 과정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서는 초창기에 호교적인 작품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질적인 면에서 훨씬 성숙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독교 소설 중 간음죄를 모티프로 한 장편소설 이광수의 <재생>, 박영준의 <종각>, 이종환의 <에덴의 후원>등을 중심으로 주인공들이 속죄 과정을 통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재생>에서 순영의 회개 행위는 치열한 내적 갈등이나 고뇌가 실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단지 작가의 관찰만 서술되어 관념적이다. 그녀의 죽음은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거듭난 삶을 뜻하지만,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불행한 딸을 보살피며 새로운 삶을 계획했어야 할 것이다. 봉구 역시 배신한 순영에 대해 복수심을 버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회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농촌에 들어가 봉사하는데, 이런 인류애적인 사랑 구현은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춘원의 박애 사상에 기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 추상적 관념화에 머물고 있다.

둘째, <종각>에서 광주의 자학과 금욕적인 속죄관은 기독교적 속죄 의식에 한국 문화의 유교적 가치관이 가미된 일면이 있다. 정욕의 죄의식으로 인한 그의 고통과 두려움은 죄 자체보다 우리 문화의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본 전통적 가치 판단과 세상 비난에 따른 사회 인식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죄의 대가라 생각하며 금욕적인 삶이 하나님 축복의 원인이기에 그것을 자기 구원 방법으로 인식한다.

셋째, <에덴의 후원>에서 대위의 삶은 성서 인물 중 다윗의 간음 모티프와 유사하다. 그의 속죄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죄인 구원의 대속물로 보지 않고 단지 도덕적 감화를 받아 죄를 멀리하고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도덕적 감화설'에 바탕을 두므로 그는 무료 의료 사업이라는 자선사업과 선한 삶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수는 자신이 아닌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니 그의 속죄 사업을 성인이나 도덕 군자의 모범적 행위로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은 그로부터 감동을 받아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속죄, 간음, 무실천의 자기 합리화, 자학과 금욕, 도덕적 감화

참고문헌

『동광』, 1931. 4.
『聖書百科大事典6』, 성서교재간행사, 1980.
강성두, 『구원과 해방』, 쿰란출판사, 1994.
김봉군, 『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민지사, 1997.
구인환, 『이광수 소설 연구』, 삼영사, 1987.
권대웅, 「춘원의 작품과 종교적 의의」, 『이광수 연구 · 下』, 태학사, 1984.
기진오 外 2人, 『한국 근대소설의 기독교 수용』, 성서교재 간행사.
김치수,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박영준 · 이무영, 『한국현대문학전집10』, 삼성출판사, 1981.
이강수, 『한국대중문화론』, 범문사, 1987.
이광수, <재생>, 『이광수 전집 2권』, 삼중당, 1963.
이보영, 『한국소설의 가능성』, 청예원, 1998.
이종환 외 3인, 『신한국문학전집23』, 어문각, 1975.
채필근, 『철학과 종교의 대화』, 대한기독교서회, 1983.
죤 머레이, 『구속론』, 하문호 역, 성광문화사, 1983.
폴 틸리히, 『조직신학』, 김경수 역, 성광문화사, 1978.
루이스 벌고프, 『조직신학』(이상원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Abstract>

Aspect of Atonement of 'adultery' in Modern Novel

Shin, Ik-Ho

In this manuscript, I analyzed how to overcome problem of relief through the process of atonement using adultery motif among the modern novels, Revival written by Lee, Gwang Su, Belfry written by Park, Young Jun, Back yard of Eden written by Lee, Jong Hwan.

First, repentance behaviors of Soon-young in Revival are described by the observation of writer not being embodied practically. Her death means revivable life, which you may know through the title. But she should take care of her daughter and make a plan her new life if she repents of her sins. Bong-gu gives up his revenge on Soon-young and goes back to his hometown and serves the community. Like this, love for mankind is originated from philanthropy of Chun-Won who was affected from Tolstoy.

Second, self-torture and ascetic atonement of Gwang-ju in Belfry shows Christian atonement and Confucian's value. His anxiety about his sin of sexual desire is affected not sin itself but traditional value and standard of Confucian society. Finally, he regards his pain and suffering as a price of his sin, so he pursuits ascetic life as a way of self-rescue.

Third, Dae-wi's atonement in Back yard of Eden is based on moral influence, so he focuses on free medical treatment activity. He doesn't think of pain and suffering as redemption of sin, he keeps away from sin. Because Jesus was dead instead of other people's sin, he think that people should pursuit model life like Jesus. That is to say, people should live a moral life.

Key Words: atonement, adultery motif, self-torture, self-rescue, moral influence